

효성히다찌 데이터시스템

中小企業 MIS 등으로 「脱 그룹電算化」박차



30여년을 전산사업에 몸담아온 楊太源 사장.

「시스템컴퍼니(System Company)로의 정착」을 올해의 목표로 230여명의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뛰고 있는 (주)효성히다찌데이터시스템.

공식적으로는 지난달로 창립 1년 7개월째를 맞았으나 효성히다찌의 사실상출발은 10년전인 78년 1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효성히다찌의 前身은 동양나이론(주)의 전산실이다.

78년 1월 IBM370-115를 도입, 급여처리를 시작한 동양나이론은 일본 히다찌사와 기술도입계약 체결, 전자사업부 발족, 생산 및 기술요원 일본연수, 전자기술연구소 발족, 4차례에 걸친 주전산기의 레벨업(Level-up)을 통해 전산사업 능력을 배양하였다.

동양나이론은 이를 바탕으로 83년 5월 히다찌사와 「소프트웨어 설계·제도에 관한 기술제휴」를 맺고, 그해 9월 정보처리 역무제공업자로 등록, 정보처리분야 전문

기술용역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룹전산화와 컴퓨터산업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되면서 86년 11월 독립법인인 효성데이터시스템으로 발족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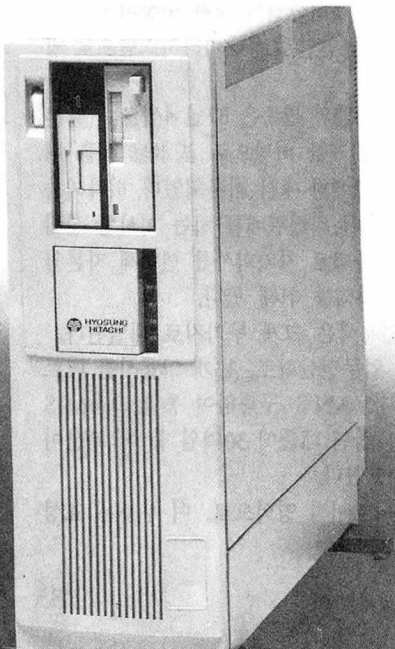
효성히다찌데이터시스템의 발족은 87년 4월로, 일본 히다찌사에 그동안의 관계를 바탕으로 基本參與를 허용, 전주식의 15%를 할애한 데서 비롯되었다. 히다찌사는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직접판매를 하는 지사망 설립을 배제하고, 보통 제품별로 지역회사를 선택해 자본참여를 하는 간접판매 형태를 취해 왔다.

효성히다찌의 사업특색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효성그룹의 업무전산화로, 13개 그룹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룹VAN을 구축하여 통합 그룹MIS를 이룩하는 것이다. 작년 매출액 30억원 중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였다.

둘째, 시스템컴퍼니로서의 영역으로, 이 부분은 효성

효성히다찌의 하드웨어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특징
비즈니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WER - 5800 ●HPC - 286T ●HPC - 386T 	고속도형처리 프로세서인 ACRTC를 사용한 최신의 하드웨어와 MS-DOS를 발전시킨 새로운 OS를 채택하였으며, 듀얼 세션(Dual Session) 등 강력한 통신기능을 이용, 네트워크 시대의 수요에 부응토록 설계.
범용 및 금융단말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범용단말기 HL - 3257/8, HL - 5010 ●은행전용단말기, 현금자동지급기, 일선점포용단말기, 단말제어장치 	기업의 일반업무처리를 위한 범용단말시스템과 은행, 보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금융단말시스템이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음.
미니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HL - 70/20 ●HL - 70/25, 45, 55 ●HL - 70/08, 18, 28, 48, 58, 68 ●POWER - NET 	중소기업의 토틀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기종으로 온라인시스템 구성 및 동기중간의 수평분산처리기능을 갖추고 있고, 전산업무확대시 H/W의 펠드업그레이드가 용이하여 고객의 다양한 업무규모에 맞춰 경제적인 전산운영이 가능.
대형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66 X0 시리즈 ●AS80 X3 시리즈 ●AS90 X0 시리즈 ●AS91 X0 시리즈 ●AS/XL 시리즈 	IBM PCM 생산업체인 미국 NAS사의 CPU 및 주변기기를 완벽한 지원체제, 경제적 가격, 풍부한 S/W를 가지고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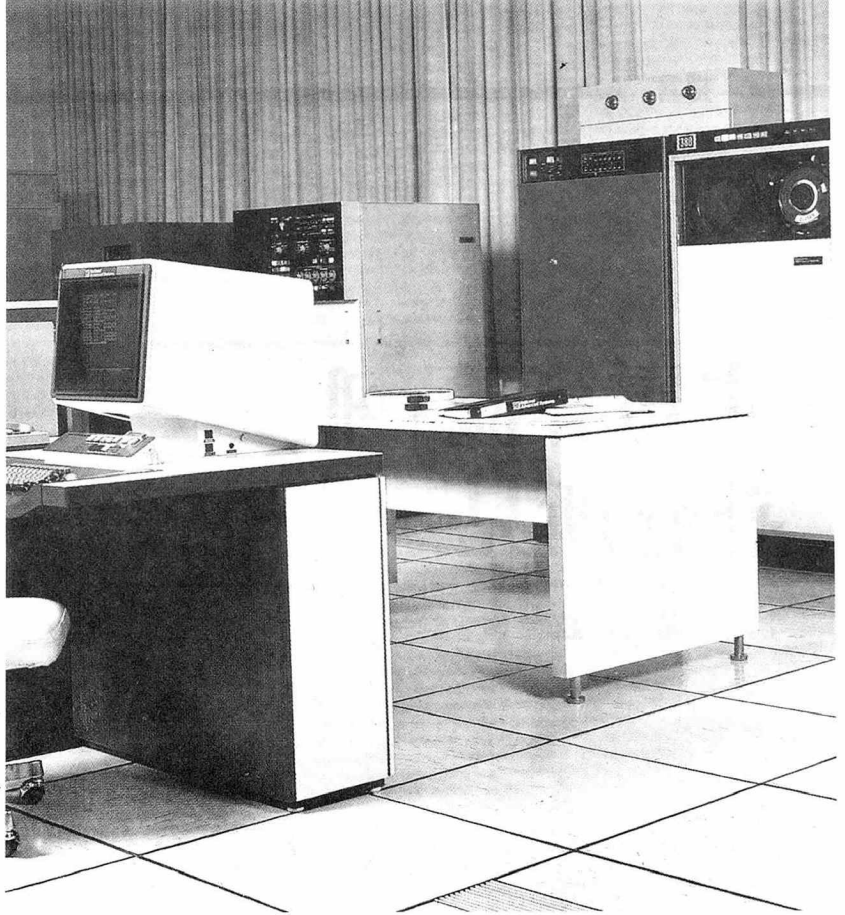


히다찌가 탈(脫)그룹전산화를 선언하고, 올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문이다. 즉, 이는 올해 매출계획 56억원 중 그룹과 대외부분 구성비율을 3대 7로 역전 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하게 될 영역인 것이다.

대외사업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소프트웨어부문에서 기본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OS, 랭귀지프로세서(Language Processor), 유틸리티프로그램, 통신제어프로그램, 기타 각종 패키지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응용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인사·판매·자재·회계·생산관리 등 기업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토틀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또한 특수소프트웨어사업으로 CAD/CAM시스템, 화상처리시스템, 그룹VAN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M 308X를
주축으로 한
주전산실 내부



하드웨어부문에서는 비즈니스PC, 범용 및 금융단말 장치, 미니컴퓨터, 대형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

이중 현재 효성히다찌가 총력을 경주하는 제품은 미니 컴퓨터 가운데 HL-70/8시리즈. 이 제품은 제조업인 경우 종업원 100명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히다찌사가 개발한 것인데, 국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래머의 한글화를 이룩하였다. 효성히다찌사는 3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올 6월 중순 이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며, 6월 14일 저녁 하이아트호텔에서 제품발표회를 갖는다.

HL-70/8시리즈의 특징은 첫째, 강력한 데이터프로세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32비트 아키텍처로서 CMOS에 의한 VLSI 및 1M DRAM을 탑재하고, 최대 주기억용량을 31MB로 확장할 수 있으며, 디스크로는 4GB의 대용량을 보유할 뿐더러 업무확장시 보드 추가방식에 의한 필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과 데이터의 중복·복잡한 연산과정·메모리의 낭비 등을 최대 배제한 관계 DBMS(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및 분산형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관계형 DBMS 지원에 의한 한글·한자 처리가 가능하다.

「HL-70/8시리즈를 통해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수요를

예측, 생산계획을 세우는 등 합리적인 중소기업 MIS를 확립할 수 있다」며 제품에 큰 애착을 보이는 楊大源 사장(58)은 전산분야에 30여년을 몸담아온 電算通으로 현재 효성나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한때 총무처 국가행정전산 자문위원을 지냈던 楊사장의 경영지표는 「합리성, 창의성, 팀웍」. 楊사장은 「컴퓨터산업에서 논리적인 사고는 조직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며, 자신 또한 이를 기본으로 노사, 임금 등 모든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조그마한 발상에서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창의력만으로는 시스템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팀웍도 楊사장이 항상 강조하는 덕목 중의 하나다.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에 대해 「증권거래, 여행정보 통신망의 확산이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지로 시스템, 금융결제원의 지방확산, 화물운송의 합리적 관리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의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열심히 맡은 일에 매진하는 젊은 인재들을 더욱 단련시켜 한번 멋있게 키워보는 것」이 楊사장의 포부이다. ■